

공부하는 순창군 사회복지공무원 '주경야독'

매주 화요일 밤 관련법령 익히기 등 사례 적용 토론·119 멘토링제도 운영

순창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관련 지침과 법령을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스터디 모임은 최근 사회복지 업무량이 대폭 늘고 관련제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관련 지침 및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누락되는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책임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순창군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최근 2012년 이후 임용된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119 멘토링제도 운영하고 있어 공부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스터디 모임은 4월부터 진행됐으며 매주 화요일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읍사무소 사랑방에서 진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업무관련 지침 및 법령을 공부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적용해 보고 토론도 진행한다.

특히 적성면 서귀영씨(45)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접 교재를 준비하는 등 열정을 보이고 있다.



순창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관련 지침과 법령을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읍에 근무하는 한소영씨는 "복지 업무가 방대해 급변하는 제도를 혼자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스터디 모임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부하는 공무원의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찾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 농소파출소, 민경 합동 순찰 활동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 농소파출소(소장 권기홍)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경 농소자율방범대(대장 유석)와 함께 관내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하며 협력치안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합동순찰에서는 청소년 밀집지역인 아파트 주변 및 비행우려 지역인 골목길, 학교주변 등에 대한 가시적 순찰활동과 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해업소 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청소년 대상 술과 담배 판매 시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권기홍 농소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순찰을 통해 청소년 비행 등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평온한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 치안에 적극 동참한 자율 방범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오수면, 봄철 꽃길 조성 구슬땀

임실군 오수면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꽃길 조성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달 중순부터 진행된 이번 식재는 관내 꽃박스, 하천 둔치에 베고니아, 앙귀비, 수레국화 등 경관식물을 식재했다.



작년 11월 오수천변에 유채꽃을 식재하여 올 봄 민박한 유채꽃으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오수면은 올해에도 관내에 다양한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주민들을 비롯하여 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오수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둔남천 둔치는 그간 각종 폐기물이 투기되던 장소로 이번 앙귀비, 수레국화 식재로 단순한 불거리 제공을 넘어 투기 쓰레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또한, 면은 관내 가로화단, 둔남천, 마을알길 등의 잡초제거작업 또한 진행중으로 이번 작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일차리창출의 효과를 동반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강승 오수면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관내 주요 도로 및 둔치에 꽃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아름답고 살맛나는 오수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어르신과 함께하는 호 나들이' 행사 개최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센터장 서양열)는 지난 15일 제46회 어버이날 기념주간(5.8~5.15)을 맞아 전주시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및 볼 소풍을 함께 하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호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감사와 나눔'을 전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독거어르신의 어려움을 살피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은 전주시립국악단과 봉사단체 징검다리의 후원으로 '남상일과 함께하는 정오의 비타민 공연'을 관람했다. 또, 덕진공원에서 점심을 함께 나누며 감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직접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불러 어르신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에는 전주연탄은행의 후원을 받아 급안노인복지관에서 독거어르신 500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의 소중한 뜻을 되새기기도 했다. /기동취재반



무진장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16일 무주반딧불 시장 등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구간을 설정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5월 지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하여 무주군 일원에서 일제히 실시했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군민이 실제 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군민이 소방차에 직접 탑승 후 소방관과 함께 실제 출동훈련을 하면서 소방차 양보운전에 대한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진장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양보운전 요령에 대한 홍보영상을 사전에 배포해 부근 전광판에 상영하고 있으며 중앙(지역)방송,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하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 국민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김일선 소방서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든 군민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서 청문실 다중문집장소 찾아 인권·피해자 보호 홍보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각 종 행사장을 포함한 터미널 등 다중문집장소를 찾아가 인권·피해자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다.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보복성 범죄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제도 및 스마트위치 제공, 숙박업소와 연계한 피해자 임시 쉼터 제공,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심리적·경제적 지원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피해자 인권보호활동 등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 김정아 순경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범죄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즉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범죄피해자에 보호 지원제도 및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보다 힘 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